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을 찾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격려한 뒤 후보자들과 민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1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과 함께 두 팔 벌려 민세를 외치고 있다.

## ‘민주 정신 되살려 원팀돼 6·1 지선 승리로 이끌자’

김관영 도지사 후보 포함 민주 전북 단체장 후보 ‘결의’  
전북 방문 이재명 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후보자와 간담회  
이세종 열사 참배 후 金, 보훈가족본부와 권리 증진 협약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17일 전주를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이세종 열사비를 찾아 올해로 42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을 되새겼다  
이재명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격려하며 “모두가 민주 정신을 되살려 원팀이 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자”며 결의를 다졌다  
이세종 열사비 참배를 마친 김관영 후보는 보훈가족본부(단장 양병근)와 후보캠프 사무실에서 선거승리와 보

훈가족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전국모범운전자협회(회장 송양수 이하 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중앙회(전북지회장 오미숙)가 제안한 지역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김 후보와 보훈가족본부는 이날 협약에 따라 도지사 당선과 보훈가족 권리증진을 위한 보훈 정책 발굴 및 개발 홍보 등을 제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가족본부는 유세총괄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현장 유세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본부의 역할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는 보행 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지원 강화, 전동킴보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관영 후보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확대는 당연한 일”이라며 “전북지역 3만,427명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중앙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 들었다. 또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공약을 잘 살펴보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 ‘전북도민들의 성공시대 열자’

조배숙 국힘 도지사 후보, 선대위 발대식·이세종 열사 추모식 참석도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1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어 오후에는 5·18 전국 최초 희생자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 추모식 참석해 ‘높은 뜻 기려하고 현화했다’  
이날 조 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는 하종대, 정운천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주건국, 김동수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단체인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도당 관계자, 지지자 등이 함께 했다  
하종대(전 채널A 앵커) 총괄선대위원장은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의 ‘전북도민 성공시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민주주의의 완성은 골고루 잘사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조배숙 후보를 최초의 여성 전북도지사로 당선시켜 전북을 골고루 잘사는 고장으로 변화시키는 새역사를 만들자”며 조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배숙 후보는 “전북이 국민의힘의 힘지던 것 잘 알고 있다. 전북을 일당 독점에서 탈피시키기 위해 출

마했다. 지역을 돌아보니 상상으로 지지자들과 격려하는 도민들을 많이 만나 시간이 갈수록 힘이 난다. 당선이 목표다. 후보가 필사의 각오로 될 것이니 여러분도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의 마음으로 뛰어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대위 발대식 마지막은 총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부터 ‘더 열심히 뛰자’는 의미로 조 후보에게 운동화를 전달하는 필승기원 퍼포먼스를 끝으로 발대식을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열사 추모비 앞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북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 현화함으로써 열사의 민주주의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조 후보는 자신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5·18 정신은 군부독재에 맞서 자유, 자주, 민주 정신을 용기있게 드러낸 민주시민 정신의 발로”이고 “자유사랑”이며 “나이가 인류사랑”라 말할 수 있다. 5·18정신은 이제 어느 한쪽의 전

유물이 아닌 인류 보편의 세계시민 정신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총괄선대위원장 정운천(국회의원), 이용호(국회의원), 양정무(앵스필드 대표), 이충상(경북대 로스쿨 교수), 하종대(전 채널A앵커) ▲명예 선대위원장 조남조(전 도지사) ▲상임고문 조철현, 김영구, 유홍렬, 전희재, 태기표, 이건설, 유유순 ▲공동선대위원장 주건국, 김동수, 허남주, 박성태, 김경안, 임석삼, 나경권, 김항술, 신현강, 김지광(청년) ▲정책자문위원장 김인수, 오용기, 박현용, 마용권 ▲전략기획위원장 송영남, 천상덕 ▲여성가족위원장 오경희 ▲장애인지역위원장 김양욱 ▲노인위원장 오영규 ▲여성위원장 허금석, 장인경 ▲청년위원장 김부겸, 주영광 ▲대학생위원장 이후동, 조수민 ▲총괄선대본부장 김상휘 ▲본부장 오동훈 ▲전략기획본부장 천서영 ▲유세본부장 최현석, 조지환 ▲공명선거본부장 오은석, 오은선 ▲대변인단장 이태한 ▲대변인 문정선 ▲수행실장 한성숙, 정국진 ▲특보단 이혁균 ▲홍보부장 정영환 등 총 362명으로 구성됐다. /유호상 기자



경제도약, 정의로움 김제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 중심  
**포용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welfare 김제시